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회의록

2013. 3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작성자

과명: 학교지원과

담당: 장인호
(☎2133-3919)

팀장: 강지현
(☎2133-3912)

과장: 유길준
(☎2133-3911)

2013년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제 1차 정책협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개최일시 : '13.3.22(금) 14:00 ~ 15:45
- 장 소 : 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정책협의회 위원 등 13명
- 상정안건 : 1건 (토의)
 1. 교육·복지 민관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2013년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제 1차 정책협의회 회의록

- 000 위원장 : 지금 먼저 발표하신 내용을 질의하거나 의견 주시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보고받는 자리로 끝나는 아쉬움을 김옥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제가 서울시에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 복지 협의체의 진도가 제일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 과장, 담당이 바뀌었지만 민간협의회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신 정보나 자료는 향후 기여할 수 있는 논의해야할 귀중한 자료입니다. 근본적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구단위로도 확산되고 구현되는 방안을 진지하게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 000 위원장 :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했는데 담당의 변경으로 진행이 안됐고 다시 가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과제별 집중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 그와 관련 지난번에도 분과별로 움직이는 것으로 했는데 멈춰버리고 다시 분과별로 하자고 하기엔 시기적으로 그렇고 과제별로 해서 분과를 대행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1년동안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 당연직 위원들의 선출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내년도 사업의 예산과 주요정책 방향 제시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정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예

산과 주요과제 중심으로 논의하고, 지난번에 제안된 사항도 6~ 7월에 특별하게 조정하기 어렵기에 올해 워크숍 개최 때에 정책협의회 단위가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 000 **과장** : 자치구 단위의 지역협의회 구성이 참으로 어려운데 그동안 000 간사의 도움으로 14개 구청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나 나머지 11개 구청은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관심도에 따라 구성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안승문 간사와 협조하여 구청을 다니면서 함께 구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 교육협력국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이용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000 **간사** : 성북구청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의 아동 청소년 교육 등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목표로 모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모여서 협의체적 성격의 모임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그걸 더 진전해서 협의회를 만든다거나 일 중심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다양하게 나누어진 사업들을 메이저를 시청이나 교육청 등이 분담해서 하고 잘되고 있는 사업은 구청에서 키워서 타 구청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 미흡한 사업은 통폐합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의회 구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 교육당국의 주도로 한 것들이 민관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상당히 컸으나 성과는 미흡하여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제중심으로 실질적인 분야를 찾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에게는 놀토도 고충스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놀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겠습니다.

- 000 **위원**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몇 가지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복지사 경우 교사확충을 위한 것으로 시에서 뽑아서 교육청으로 파견 분배하는 방법도 가능,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 클럽 연계하여 활성화 지원 등의 방법도 가능하며 획기적 교육 혁신을 제안해봅니다.
- 000 **위원** : 재정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교육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고 그 수혜의 대상을 넓힌다는 점이고, 서울시의 교육협력이나 교육청의 교육 사업이 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서로 모르고 있기에 서로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서 자신의 해결력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센터 설립(11개)이 교육·복지 민관협의 지역협의회를 만드는 것과 너무나 흡사해 중복되어있다. 서울청의 사업을 미리 사전에 연초에 논의가 되었다면 중간지점을 찾아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 같은 회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이 되는데 한 달에 2번이라도 한번 만나면 10시간이라도 3개월 정도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13년에는 25개의 지역협의회를 만드는게 나의 과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센터를 만들고 서울시에서는 지역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고민이다. 감히 제안하건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 000 **위원장** : 정리해보자면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이 뒷받침돼서 함께 고민해서 학교내에서 지원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학교 밖에서 지원하면서 가는게 종합적으로 교육을 발전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다는 맥락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의제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5월에 워크숍을 하자면 그 방향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뒷받침되기에 내년 사업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 000 **위원** : 실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사단을 만들어 위원장과 간사단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간사단에 일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 000 **위원장** : 이 운영을 간사단에 맡기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안전을 내놓도록 하자는 겁니다.
- 000 **간사** : 간사단이 서울시에 2명, 교육청에 1명, 시민단체에 1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000 **과장** : 정책협의회를 하기 전에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안전을 설정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설정한 다음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집약해서 다음 안전을 보고 드리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 000**위원장** : 000 실장님 한 번 의견을 주시지요
- 000 **위원** : 오늘은 처음이라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 000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 000 **위원** :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안전을 가지고 토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000 **국장** : 위원은 아니지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비를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지원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서울시에 학교 보안관 배치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확대하신다면 중학교가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은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진로 교육이 강조돼서 중학교에 집중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체험센터를 확대 개관을

하고 전 구에 걸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장** : 000 의원님이 교육사업 대한 예산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아동청소년과가 직접적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지원과 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단지 보고사항이 아니라 협의회의 주체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 저도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교육협력국, 아동청소년과, 문화국에서도 있는데 어디에서 해야 가장 좋을지 특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맥락에 교육청에 방과후 예산이 200억쯤 되는데 각 기관별로 제안이나 통폐합한 다든지 해서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5월 워크숍에서 만들고 예산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 000 **위원** : 5월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중복 사업 점검, 현황파악하고 의미 있는 것을 키우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5월 워크숍에 낼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는데 이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서 모임을 갖는 것을 제안합니다.
- 000 **위원장** : 각종 협의회나 운영회를 운영하다 보면 관심분야나 적극적인 분들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되는데, 1차적으로 간사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제안된 많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지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의 경우 자연스럽게 해

서 자발적인 모임 형태로 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000 **위원** : 교육복지 평가센터설립 검토에 대한 검토가 있는 데 결정된 사항입니까?
- 000 **과장** : 용역 결과 제안이 들어온 내용이고 교육복지평가센터 역할을 보면 센터의 필요성과 기능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보고 드린 것이었습니다.
- 000 **위원장** : 정리된 논의사항으로 간사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오늘 결정사항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속에서 녹여서 만들어 내면 되겠습니다.